

# 일제강점기 기독교면려회의 노선과 기독교윤리적 함의

- 기관지 『眞生』 창간호(1925년 9월)를 중심으로

이장형 (백석대학교 교수) · 안수강 (백석대학교 강사)

## I. 들어가는 말

1. 문제의 제기
2. 기독교면려회의 역사와 연구 필요성

## II. 기독교면려회 『眞生』 분석

## III. 『眞生』 창간호에 나타난 기독교면려회 노선과 윤리

1. 홍병선의 “朝鮮教會의 將來와 教會靑年의 覺悟” 분석
2. 김윤경과 채필근의 기독교청년의 ‘인격’을 논한 글 분석
3. 안대선의 “訓練된 일꾼” 분석
4. 장성식의 “基督靑年과 奮鬪” 분석

## IV. 나가는 말: 기독교면려회의 기독교윤리적 함의

DOI: <http://dx.doi.org/10.21050/CSE.2019.44.13>

---

• ABSTRACT •

---

The Line of ‘Christian Endeavor’ under the Rule of Japan and  
implications of Christian Ethics: Focused on the Initial Publication of  
*The Chin Saing(True Life)* Published at Sept. 1925

Lee, Jang-Hyung (Prof., Baekseok University)  
Ahn, Su-Kang (Lecturer, Baekseok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analyze and reflect on the foundational ideology(idea) and line of ‘Christian Endeavor’ through the initial publication of *The Chin Saing(True Life)* published at Sept. 1925 and propose the implications of Christian ethics to contemporary days. First, this paper deals with the bibliographic information on the magazine. Second, the writings of Byeong-Seon Hong, Yun-Gyung Kim, Pil-Geun Chae, Dae-Seon Ahn, and Seong-Sik Jang are chosen and summarized Christian Endeavor. Each of these writing is distinctive, but common argument is as follows: the sudden-changed society is corrupt.; Christianity is embodied.; young Christian should be responsible for its crucial accountability and obligation.; and, to bring up these young people, Christian Endeavor should carry the ball. Lastly, this research proposes ethical implications to all Christians today: Christians should be very cautious of Mammonism caused by corruption and set up calling by God; Christians should settle our personality as a moral identity based on Christian world-view; and, Christian community should handle sincerely ethical accountability and single out young people continually to seek to transform society by training.

**Key words:** Christian Endeavor, *Jinsaeng*, Wallis J. Anderson, Christian Ethics, Youth Movement, Byeong-Seon Hong, Yun-Gyung Kim, Pil-Geun Chae, Seong-Sik Jang

---

## I. 들어가는 말

### 1. 문제의 제기

본 연구는 1924년도에 결성된 한국 기독교면려회(Christian Endeavor)의 기관지 『眞生』 창간호(1925년 9월)를 분석하여 기독교면려회의 창설 이념과 노선을 고찰하고 오늘날 우리 시대에 주는 기독교 윤리적 함의를 제시하려는 데 목적을 둔다. 본 논문 제2장 ‘기독교면려회 『眞生』 분석’에서 소개한 것처럼 기독교면려회 기관지 『眞生』은 1925년 9월에 창간하여 1930년 12월에 중단하기까지 60권 이상이 간행되었으며 매 호당 거의 70면이 넘는 면수임을 감안하면 매우 방대한 분량이다. 또한 본 논문 제1장 2절 ‘기독교면려회의 역사와 연구 필요성’에 정리한 선행연구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기독교면려회와 관련하여 그동안 『眞生』을 분석한 연구가 거의 시도되지 못했다. 창간호는 처음 기독교면려회가 조직되면서 발행된 기관지의 효시가 된다는 점에서 그 방향성과 가치관, 목적의식 등 개요를 살펴볼 수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창간호를 중심으로 일제강점기 기독교면려회의 노선과 기독교윤리적 함의에 대해 고찰할 것이다. 창간호가 기독교면려회에 관한 모든 내용을 총괄한 것은 아니지만 이후 발행된 모든 『眞生』지에서 다룬 주제들을 고려하면 청년의 인격과 사역, 농촌운동, 교육, 여성운동, 재물관, 절제 윤리 등 사회와 관련하여 매우 포괄적인 주제를 다루었다는 점에서 창간호는 기관지 전체의 대변적인 성격을 갖추었다고 높게 평가할 수 있다. 또한 기독교공동체 및 각 개인이 감당해야 할 윤리적 책임과 의무를 역설한 점은 당시 기독교면려회를 지도한 인사들이 이미 개혁자적 사회의식에 투철했다는 사실을 반영한다.

요즘 들어 사회와 언론에서 자주 언급되는 용어들 중에 ‘AI’(Artificial

Intelligence) 혹은 '4차 산업' 등이 빈번하게 등장한다. 전에는 상상할 수조차 없던 일이다. 인간이 담당하던 상당부분의 일들을 기계가 대신 처리하며, 이는 빅 데이터 이용과 대량정보 처리 및 고도의 인공지능이 개발되는 환경을 반영한다. 박명우는 일에 대한 논점으로서 새로운 차원의 산업구조는 새로운 일의 목적과 그 다양성 예측을 요구한다는 점을 강조했다.<sup>1)</sup> 그런데 이런 환경은 단순하게 과학기술의 발전이나 진보 차원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한국사회의 당면 과제들 중 하나인 청년들의 실업률과도 직결되며 특정 직업에 대한 선호에도 연계되어 풀기 어려운 난제를 초래하게 된다. 인간은 소명의식에 입각하여 열정을 다해 일을 수행함으로써 자기만족과 행복을 누리며, 나아가 이웃과 사회에 기여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런 순수한 기회를 박탈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점에서 근본적으로 일과 관련하여 신학적, 윤리적 담론과 논의가 요청된다. 바로 이러한 문제의식에 입각하여 이 연구에서는 특히 개화 2세대 단계에 들어선 시기에 청년들에게 일에 대한 소명의식과 자아성취, 이타적 헌신 등에 큰 영향을 끼친 역사적 사례로서 기독교면려회의 활동에 주목하고자 한다.

## 2. 기독교면려회의 역사와 연구 필요성

본래 한국 기독교면려회는 자생적 단체가 아니라 면려회가 활성화되어 있던 미국으로부터 전래되었다. 국제 기독교면려회는 미국, 캐나다, 멕시코 등지에 있는 개신교 청년들을 배려하여 초교파적으로 결성된 단체였다. 1881년 메인주 포틀랜드 윌리스톤 회중교회의 클라크(Francis E. Clark) 목사가 청년들을 위해 조직한 모임이 단초가 되었으며 기독교면려회라는 명칭은 1927년에 붙여졌다.<sup>2)</sup> 이 운동은 미국 내에서 급속도로 성장하면

1) 박명우, 『어떻게 일할 것인가?』(서울: 이엘북스, 2017), 29.

2) 김양선, “한국교회사, 제2개신교사,” 고려대학교민족문화연구소, 『韓國文化史大系(4)』

서 전 세계 기독교에 확산 보급되었다. 그러나 한국 기독교면려회는 초기 한국교회의 성장 추세에 비추어보면 비교적 뒤늦게 발족된 편이다. 널리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1901년 서울 새문안교회에서 면려회란 이름의 청년 단체가 시작된 흔적이 있다.<sup>3)</sup> 일반적으로 기독교면려회가 체계화되어 나타난 구체적 사례로서는 경북 안동읍교회의 기독교면려회를 꼽는다. 삼일독립운동 2년 후인 1921년 2월 5일에 미국복장로회 파송 선교사 앤더슨(Wallis J. Anderson, 安大善)이 자발적으로 안동읍교회에 이 기독교면려회를 조직했다.<sup>4)</sup> 이 면려회에서는 초기에는 전도사업, 성경연구, 교회봉사 등 교회 내의 활동에 치우쳤으나 점차 운동이 활발해지면서 금주금연운동, 문맹퇴치운동, 농촌사업 등 사회 계몽운동으로 활동의 영역을 넓혀갔다.<sup>5)</sup> 안동읍교회 청년들은 “그리스도와 교회를 위하여”라는 표제를 앞세워 이를 실천하기 위한 운동을 전개했고 기도모임을 통해 이 운동의 방향성을 정립해나갔다.<sup>6)</sup> 안동읍교회에 기독교면려회가 조직된 지 4개월 후인 1921년 6월에 안동에서 면려회 총회가 개최되었는데 25개 지회에서 600명의 회원이 모였을 정도로 큰 규모의 집회이었다. 이러한 일련의 활동이 모티브가 되어 1921년 장로교 제10회 총회에서는 기독교면려회를 각 교회에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여 상정된 안건을 결의했다.<sup>7)</sup> 1924년 12월에는 서울 피어선성경학교에서 정식으로 전국 규모의 기독교청년면려회 조선연합회 창립총회 및 제1회 면려회 전선(全鮮) 대회가 개최되어 회장에 박현식, 부회장에 김창덕, 총무에 앤더슨이 선출되었다.<sup>8)</sup> 이

(서울: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1978), 662.

3) 이만열, 『한국기독교문화운동사』(서울: 대한기독교출판사, 1992), 266.

4) 앞의 책, 266.

5) 김인수, 『한국기독교회의의 역사』(서울: 장로회신학대학교출판부, 1998), 303.

6) 이만열, 『한국기독교문화운동사』, 266.

7) 김인수, 『한국기독교회의의 역사』, 303.

8) 김양선, 『한국기독교회사 연구』(서울: 기독교문사, 1971), 134.

듬해 9월에는 기관지 『眞生』 창간호가 발행되었고<sup>9)</sup> 전국에 기독교면려회의 이념과 목적, 노선, 과업 등을 홍보할 수 있었다.

그러나 1930년대 중반 중일전쟁에 돌입할 즈음 미나미 지로(南次郎, 재임 1936-42) 총독이 부임하여 황국신민화 및 내선일체 정책이 강화되면서 1938년 9월에 면려회가 해체되는 아픔을 겪었다. 금주운동과 절제운동을 민족구원 차원에서 추진하던 기독교면려회는 1937년 불온문서법에 저촉되어 강신명과 전국 기독교면려회 서기 이양섭 등이 기소되었고 YMCA 등 청년단체들과 더불어 점차 탄압이 가중되었다.<sup>10)</sup> 해방을 맞이하여 기독교면려회 재조직을 위한 노력을 경주했고, 마침내 1947년 서울 승동교회에서 교과를 초월하여 ‘한국기독교청년회전국연합회’가 조직되었다.

한국 기독교면려회에 관한 주목할 만한 선행연구는 그동안 단지 몇 편의 논문만이 발표되었을 정도로 연구가 활성화되지 못했다. 해방 전 기독교청년들의 사역을 활성화시킨 양대 기구는 기독교면려회와 YMCA였다. YMCA는 젊은이들에게 직업훈련을 실시했고 학제를 운영하여 전문직업인을 배출하는 건실한 기관이었다. 그러나 이에 비해 기독교면려회는 상대적으로 기구로서의 응집력, 경제력 등 모든 면에서 열악한 형편이었고, 이런 점에서 YMCA에 비해 기독교면려회의 연구가 소홀했던 것으로 보인다.<sup>11)</sup> 오기형은 “기독교 면려회란 무엇인가?”(1954)<sup>12)</sup>에서 기독교면려회의 역사를 살펴 이 운동이 1881년 2월 미국 윌리스톤에서 클라크에 의해 출발한 운동이며, 1932년 한국의 장로교 청년대표 4천여 명이 중심으로 시작된 것

9) 김봉희, 『한국 기독교문서 간행사 연구(1882-1945)』(서울: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1987), 52.

10) 민경배, 『한국기독교회사』(서울: 연세대학교출판부, 2000), 503-504.

11) 해방 전 YMCA의 학과와 학제, 교육성격, 인원, 예산 등에 대해서는 다음 논문을 참고할 것. 안수강, “해방 이전과 현 YMCA의 기독교 활동 비교,” 『역사신학논총』 제30집 (2017), 144-180.

12) 오기형, “기독교 면려회란 무엇인가?,” 『신학논단』 제2집 (1954), 91-95.

으로 보았다. 김인수는 “초기 한국교회사에 나타난 절제운동에 대한 고찰”(1998)<sup>13)</sup>에서 국채보상운동, 탈환회 운동, 감선회 운동, 절제회 운동, 금주금연 운동 등을 살펴 기독교면려회의 주요 활동내력을 개관했다. 김덕은 “1920~30년대 기독교청년면려회 연구”(2003)<sup>14)</sup>에서 기독교면려회에 대한 역사적 근거와 사료 전반을 소개해주었지만 경제, 사회, 직업 윤리 등 내용적인 평가를 시도하지 못한 점이 아쉽다. 이런 점에서 서신혜의 “기독교 전래에 따른 일제 강점기 경제 인식의 특징과 나눔 인식”(2013)<sup>15)</sup>은 새로운 시사점을 준다. 그는, 조선유학자들은 도(道)와 재물이 공존할 수 없다고 보았으나 기독교가 전래된 후 한국기독교인들의 경제의식에 큰 변화가 일어났고 재물 사용을 통해 인격이 형성된다는 논리를 편 점과 경제 주체인 인간을 청지기로 규정하여 생활태도나 생산 및 소비 태도를 맞춘 점을 높게 평가했다.

이 연구에서는 기독교면려회 기관지 『眞生』 창간호에 게재된 기독교면려회 관련 주요 메시지들을 심층 분석함으로써 기독교면려회가 결성될 당시 지향했던 노선이 무엇이었는지를 밝힐 것이다. 또한 게시히테(Geschichte) 차원에서 당시 기독교면려회에서 추구했던 노선이 오늘날 기독교청년들에게 주는 윤리적 함의가 무엇인지를 제시할 것이다. 이 연구는 다음 세 가지 관점에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첫째, 이론적 담론에 치우치기 쉬운 기독교윤리를 기독교면려회라는 역사적 사례에서 도출해내는 귀납법적 연구를 시도한다는 점이다. 구체적으로 일제강점기에 사회참여에 적극 솔선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기독교

13) 김인수, “초기 한국교회사에 나타난 절제운동에 대한 고찰,” 『敎會와 神學』 제33집 (1998), 35-44.

14) 김덕, “1920~30년대 기독교청년면려회 연구,” 『한국기독교와 역사』 제18집 (2003), 203-240.

15) 서신혜, “기독교 전래에 따른 일제 강점기 경제 인식의 특징과 나눔 인식,” 『기독교사회윤리』 제26집 (2013), 149-177.

교세계관에 입각하여 시의성 있는 사회윤리를 구축했던 기독교면려회의 활동을 고찰하는 목적이 여기에 있다.

둘째, 이 연구는 당시 보편화된 세계 기독교면려회 창설 목적 혹은 사업 전개 동향 등에 초점을 두기보다는 일제 강점기 한국에서 전개된 토착화된 기독교면려회를 고찰함으로써 순수하게 한국적 상황을 살펴본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셋째, 기독교면려회의 사회를 향한 이타적 헌신의 의미를 재조명하여 적용적인 차원에서 현 기독교윤리적 함의를 제시한다는 점이다. 현대사회는 공동체 멤버십보다는 이기적 사고가 팽배하고 활동범주에 있어서도 사회보다는 우선 자신의 삶에 큰 목적과 가치를 둔다. 인생은 단지 한 번뿐이라는 ‘올로’(YOLO: You only live once!) 열풍이 큰 영향을 주고 있으며, 이 사고를 능가할 만한 대안적 가치에 대한 기대는 공허로 다가 올 뿐이다.<sup>16)</sup>

## II. 기독교면려회 『眞生』 분석

기독교면려회 기관지 『眞生』은 1925년 9월 1일에 창간되어 1930년 12월 종간호를 발행하기까지<sup>17)</sup> 통권 60권 이상이 간행되었다. 편집인 겸 발행인은 안동지방에서 기독교면려회를 조직했던 앤더슨 선교사이며 발행처는 경성 ‘基督青年勳勵會朝鮮聯合會’로 되어 있다. 국관 국한문 혼용체이며 대부분 한 단 내려쓰기 방식으로 활자 조판되었고 거의 매 호당 70면을 넘길 정도로 방대한 분량으로 편집되었다. 창간호 앞부분에는 유성준, 강병주, 김광표, 정덕생, 정일선 등의 짙막한 축사가 실렸고 평소 청년운동에 깊은 관심을 표명한 강규찬, 길선주, 김익두, 김종우, 권영식, 양전백, 염

16) 김난도 외, 『트렌드 코리아 2018』(서울: 미래의 창, 2017), 107.

17) 이만열, 『한국기독교문화운동사』, 421.

봉남, 이강원, 이명혁, 이상재, 이자익, 이재형, 박승봉, 배진성, 변성옥, 신흥우, 유각경, 차상진, 차재명, 최홍중, 한석진, 함태영, 홍석후 등 기독교계 저명인사 23인이 창간을 축하하는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내용을 살펴보면 각 호마다 다소 차이가 있지만 설교, 청년사명 고취에 관한 글, 사업내용, 면려회 소식, 독자란 등이 게재되었고 기독교 분야뿐 아니라 일반 실생활에 도움을 주는 교양분야의 에세이, 학술, 시사성 있는 상식 등을 소개하는 글들도 수록되어 있다. 우선 창간호에 수록된 내용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祝辭] 俞星濬, 姜炳周, 金光票, 鄭德生, 丁一善

[수록된 글들] “人格의 眞正한 價値”(蔡弼近), “文明과 幸福의 背馳를 論하여”, “人格革命을 主唱함”(金允經), “異跡에 對한 科學的 信念”(吳天卿), “祈禱의 理由及 價値”(金永耆), “朝鮮教會의 將來와 教會青年의 覺悟”(洪秉璇), “우리는 新福音을 要求할 것이요”(康雲林), “人生아 왜 사나냐”(金弼秀), “爲先 예수 그리스도를 信仰하라”(崔泰瑢), “基督青年과 奮鬪”(張晟杼), “訓練된 일군”(安大善), “基督青年勉勵會 消息”, “基督青年勉勵會 禮拜順序”, “十字말수수격기”, “聖劇 捕虜少女의 愛國心”<sup>18)</sup>

이 연구를 위해 국회도서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眞生』 전권을 입수했으며 1925년 9월호(창간호)를 비롯하여 1926년 8월호, 1929년 3월호, 1929년 5월호, 1929년 11월호, 1930년 3월호, 1930년 4-5월호(합본), 1930년 6월호, 1930년 7월호 등 총 9호 분량이다.<sup>19)</sup> 이 문헌들에 준하여 기독교면려회 노선과 관련된 글들을 선별하여 정리하면 <표 1>과 같다. 이 표에 소개한 내용은 향후 후속연구에서 활용해야 할 중요한 자료들이다.

18) 『眞生』 창간호(1925년 9월) 목차 및 본문에 수록된 글 제목과 저자를 참고할 것.  
19) 연세대학교 국학자료실에서 창간호로부터 1930년 10월호(제6권 8호)까지 소장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표 1〉 『眞生』에 수록된 기독교면려회 노선과 관련된 내용들

| 연도/월    | 권/호  | 글 제목                           | 집필자 |
|---------|------|--------------------------------|-----|
| 1925/9  | 창간호  | 인격의 진정한 가치                     | 채필근 |
|         |      | 문명과 행복의 배치를 논하여 인격혁명을 주창함      | 김윤경 |
|         |      | 조선교회의 장래와 교회청년의 각오             | 홍병선 |
|         |      | 기독교청년과 분투                      | 장성식 |
|         |      | 훈련된 일군                         | 안대선 |
| 1926/8  | 통권12 | 어이켄 씨의 사회주의 비판                 | 김영구 |
| 1929/3  | 5/1  | 교육상의 3대 사업                     | 이대위 |
|         |      | 농민교육의 이론과 실제                   | 김지웅 |
|         |      | 직업교육의 필요                       | 김려식 |
|         |      | 예수의 정신을 실재화하자                  | 박두하 |
|         |      | 농촌아동을 교양하자                     | 박영숙 |
| 1929/5  | 5/3  | 면려청년회와 민중교육                    | 강명석 |
|         |      | 성교육의 실제                        | 김윤경 |
| 1929/11 | 5/9  | 오인(吾人)의 이상(理想)하는 금후 조선의 여자운동   | 이대위 |
|         |      | 성경과 인권문제                       | 김우현 |
|         |      | 여자교육에 대하여 일언(一言)               | 김지환 |
|         |      | 면려회원들이 교회와 목사를 위하여 무엇을 할 수 있을까 | 안대선 |
| 1930/3  | 통권63 | 학교교육과 가정교육                     | 주간  |
|         |      | 교육의 목표 · 인격완성                  | 김윤경 |
|         |      | 교육의 원리                         | 한치진 |
|         |      | 아동연구의 방법                       | 김종만 |
|         |      | 여성과 도덕                         | 김종필 |

|              |      |                |     |
|--------------|------|----------------|-----|
| 1930/<br>4·5 | 통권64 | 민족적 자각과 금주     | 이대위 |
|              |      | 금주운동의 신(新) 방법  | 하마연 |
|              |      | 특수 아동에 대한 교육시설 | 석고  |
| 1930/6       | 통권65 | 산업운동과 기독교      | 주간  |
|              |      | 면려회 세계대회를 앞두고  | 안대선 |
|              |      | 청년면려회의 금후 사명   | 이대위 |
|              |      | 농촌사회 연구        | 오천영 |
| 1930/7       | 통권66 | 하기휴가를 어찌 지낼까   | 김윤경 |

### III. 『眞生』 창간호에 나타난 기독교면려회 노선과 윤리

『眞生』 창간호는 기독교면려회 창립 목적과 설립의 당위성, 기독교면려회에 부여된 과제 규명, 미래적 비전 제시 등을 입체적으로 개괄하여 소개한 기관지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본 장에서는 창간호에 게재된 글들 중 가장 기독교면려회의 의의와 노선을 뚜렷하게 보여주는 글들을 선별하여 분석했으며 홍병선의 “朝鮮教會의 將來와 教會青年의 覺悟”, 김윤경의 “文明과 幸福의 背馳를 論하여 人格革命을 主張함”, 채필근의 “人格의 眞正한 價値”, 안대선의 “訓練된 일군”, 장성식의 “基督青年과 奮闘” 등 다섯 편을 선정했다. 기독교면려회 창설과 관련하여 이 글들에 나타난 공통적인 주장은 첫째, 급변하는 시대상에 직면했고 사회가 부패했다는 점 둘째, 이러한 시대를 선도함으로써 반드시 기독교정신을 구현해야 한다는 점 셋째, 그 중추적인 책임과 의무가 기독교청년들에게 주어져 있다는 점 넷째, 이러한 기독교청년 일군들을 양성하기 위해 기독교면려회가 적극 나서서 솔선해야 한다는 점 등이다.

### 1. 홍병선의 “朝鮮教會의 將來와 教會青年의 覺悟” 분석

홍병선의 “朝鮮教會의 將來와 教會青年의 覺悟”은 창간호에서 기독교면려회의 창설의 의의를 가장 포괄적으로 체계성 있게 밝힌 글이다. 홍병선은 1911년 일본 동지사대학(同志社大學) 신학부를 졸업했으며 감리교 목사로서, YMCA와 YWCA 청년운동가로 헌신했다. 1929년에는 『丁未과 정말 농촌』을 집필했고 『農業世界』를 발행하는 등 농촌운동에 크게 기여했다.<sup>20)</sup>

글 제목에서 보여주듯이 그는 조선교회의 미래를 내다보며 장래를 담보할 청년층을 격려하면서 ‘조선교회의 미래’와 ‘교회청년’을 한 지평에서 유기적 관계로 엮어내고자 했다. 그는 거시적인 틀에서 한국기독교 역사의 과거, 현재, 미래의 시대적 흐름을 맥락선상에서 면밀하게 파악했다. 그는 역사적 해석 관점에서 과거 한국기독교의 영화로운 모습을 회고하고, 이에 비추어 당대의 병폐상을 진단했다. 그리고 이를 개혁해야 한다는 과제들을 제시했으며, 이에 대한 최상의 대안으로서 기독교면려회를 통해 기독교청년 일꾼들을 양성해야 한다는 신념을 보여주었다. 그는 비록 급변하는 시대에 살고 있지만 한국기독교는 전래 이래 반세기에 걸쳐 사상, 교육, 정치, 제도, 도덕, 생활, 종교, 의학, 사교(社交), 문예 등 다양한 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변혁을 이루었고 기독교인, 비기독교인을 막론하고 그 누구든지 이 공헌을 인정한다고 자부했다.<sup>21)</sup> 이러한 평가는 당대 지성인 춘원 이광수의 글에서도 발견할 수 있다. 그는 1917년 “耶蘇敎의 朝鮮에 준 恩惠”라는 글을 통해 기독교가 한국사회에 끼친 주요 공헌으로서 서양의 실상을 한국에 소개한 점, 사회의 부패한 도덕 갱신, 교육의

20) 기독교대백과사전편찬위원회 편, 『기독교대백과사전(제16권)』(서울: 기독교문사, 1993), 613-614. ‘홍병선’ 항목.

21) 홍병선, “朝鮮教會의 將來와 教會青年의 覺悟,” 『眞生』 창간호(1925), 33.

근대화, 남존여비 사상 타파 및 여권 신장, 한글보급 및 출판문화 기여, 한국인들의 역동적 활동 진작, 개인의식 자각 등을 들었다.<sup>22)</sup>

특히 홍병선은 “朝鮮教會의 將來와 教會青年의 覺悟”에서 점차 시대가 흐르면서 과거와는 달리 유물주의(唯物主義)가 교회에 침투해들어왔고, 그 결과 기독교세계관의 근간을 흔드는 부조리한 사상이 교회 내에 성행하는 현상을 예의주시하며 우려했다. 그는 만일 기독교가 이 위기를 타개하지 못한다면 앙상하게 해골만 남은 교회로 전락하게 될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멀리 떠나가실 것이라고 경고했다.

十八世紀末葉부터 發達해온 歐美의 唯物, 物質萬能主義가 基督教의 傳來와 갖치 傳播되었다. 그래서 基督教과 唯物萬能主義와의 戰爭 中에 드러가지 안을 수 없게 되었다. 本來 西洋 各國에서 傳播되었어은 基督教은 唯物主義 衣服을 입은 非物質主義인 基督教이엇섰다. (중략) 今日 歐美의 基督教會(多部分)가 唯物主義 아래에 잇다고 하면 그런 教會는 形骸만 나문 教會이요 基督은 벌서 썩나서 다른 데 게섯다고 하겠다. 朝鮮의 教會에도 基督의 眞 精神이 唯物主義와 形式主義와 金錢의 勢力 아래에 埋沒되는 點이 種種 잇다.<sup>23)</sup>

홍병선이 지적한 유물주의는 크게 두 가지 관점에서 분석할 수 있다. 첫째, 맘몬이즘(mammonism) 그 자체를 배격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께서 비판하신 인간 내면의 탐심을 지적했다. 그는 이 유물주의 현상에 주목하여 “그리스도는 唯物主義者가 안일다. 「富者가 天國에 드러가기는 駱駝나 針孔에 드러가기보다 더 어렵다」고 하신 말씀은 唯物崇拜者는 絶代로 基督教 信者 될 수 업는 것으로 看破하신 것이다.”<sup>24)</sup>라고 소신을 밝혔

22) 이광수, “耶蘇敎의 朝鮮에 준 恩惠,” 『青春』 9(1917), 13-18.

23) 홍병선, “朝鮮教會의 將來와 教會青年의 覺悟,” 34.

24) 앞의 글. 홍병선이 인용한 이 구절은 마태복음 19장 24절에 기록되어 있다.

다. 둘째, 당시 차츰 세력을 확대해가던 공산주의 사상을 지목한 것으로 생각해볼 수도 있다. 참고로, 1920년을 전후하여 이동휘, 김규식, 여운형 등 엘리트 기독교인사들을 통해 공산주의 사상이 국내에 유입되었고 유물론을 통해 현실적 비전과 이상을 제시하여 빈곤 하류계층에 큰 호소력을 발휘할 수 있었다. 1930년대 무렵에는 고등보통학교 재학 청소년들이 아무런 제지조치 없이 공산주의 관련 문헌들을 자유롭게 구독했을 정도로 이 사상에 심취했고 자신을 사회주의자라고 자처하는 청년들도 상당수 등장했다.<sup>25)</sup> 실제 이 『眞生』 창간호에 글을 기고한 김윤경은 “近來에 共產主義니 社會主義니 하는 新思潮에 沒理解하거나 誤解 或은 中毒된 青年으로서 『러시아에서는 不勞而得으로 거저 衣食의 分配를 맞는다』 妄想하는 者도 잇스나”<sup>26)</sup>라고 하여 공산주의 사상이 유포되는 현상을 경계했다.

홍병선은 이러한 잘못된 행태와 풍조를 일소하기 위한 방책으로 유물주의를 타파할 것, 협동심을 진작시킬 것, 인권 동등을 실현할 것, 고루한 형식과 규칙을 타파하여 활기찬 생활을 고양할 것, 교회 내의 불합리한 현상들을 기독교정신에 입각하여 개혁할 것 등 다섯 가지의 혁신안을 제시했다.<sup>27)</sup> 그는 이 글 마지막 문단에서 이 개혁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청년들이 마음에 굳게 결단하여 반드시 실천해야 할 윤리적 과제들이 있다고 했다. 그는 ‘青年의 覺悟와 新時代’라는 별도의 소제목을 마련하여 기독교 청년으로서 갖추어야 할 윤리적 과제들을 모두 아홉 항목으로 정리했다.

압호로 오는 時代는 新時代이다. 우리는 新時代 青年이 되어야 할 것이다.  
(중략) 우리는 創造的 青年이 되어야지 우리의 創造코져 하는 時代는 우리의

25) 민경배, 『한국기독교회사』, 376-377, 454.

26) 김윤경, “文明과 幸福의 背馳를 論하여 人格革命을 主張함,” 『眞生』 창간호(1925), 13.

27) 홍병선, “朝鮮教會의 將來와 教會青年의 覺悟,” 34.

時代가 될 것이다. 우리는 新時代의 要求를 듣는가. 그대들의 耳邊에 新時代의 소래나 들리는가. 우리는 教會에 다니는 靑年인즉 其 生活이 基督의이 아니면 안될 것이다. 1. 奢侈하지 말자. 2. 驕慢하지 말자. 3. 他人格을 업수이 너기지 말자. 4. 態度가 正直하자. 5. 手段의 行動을 바리자. 6. 所謂 黨派의 行動을 바리자. 7. 무슨 일이든지 徹底하자. 8. 勤勉하자. 9. 現狀을 悲觀치 말자.<sup>28)</sup>

홍병선이 위의 인용문에 제시한 사치, 교만, 타인 존중심, 정직, 수단, 분열행위, 근면성, 비판 등 윤리적 관점들은 기독교청년들이 유물주의와 세속화에 몰들어가는 교회를 개혁하기 위해 갖추어야 할 고결한 인품을 가리킨다. 이렇듯 홍병선은 “朝鮮教會의 將來와 教會靑年의 覺悟”를 통해 기독교 전래 초기 반세기에 보여주었던 기독교의 위대한 업적들을 소회함으로써 당대 교회의 타락과 속화를 진단했고, 참신한 인격을 갖춘 청년들이 기독교신으로 교회를 개혁하여 한국기독교의 미래를 개척해줄 것을 당부했다.

## 2. 김윤경과 채필근의 기독교청년의 ‘인격’을 논한 글 분석

홍순원이 말한 것처럼 개혁 혹은 혁명의 정체성은 사회구조의 변화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혁명적인 인간의 의식에 달려 있다. 역사적으로 그동안 정치, 경제, 사회 분야에서 수많은 혁명이 시도되었지만 실패로 돌아간 이유는 바로 개혁 시도가 인격 혁신이 아닌 제도적 차원에 머물렀기 때문이다.<sup>29)</sup> 『眞生』 창간호에는 인격을 주제로 강론한 유사한 글 두 편이 수록되어 있다. 이는 한국교회의 미래를 짊어질 기독교청년들이 참된 개혁자들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기독교 정신에 입각하여 바른 인

28) 앞의 글, 36.

29) 홍순원, “인격과 사회구조에 나타나는 악의 연대성,” 『기독교사회윤리』 33(2015), 400.

격을 갖추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의도에서였다. 기독교청년들이 갖추어야 할 인격에 대한 논의는 앞서 소개한 홍병선의 글 “朝鮮教會의 將來와 教會青年의 覺悟” 말미에도 비중 있게 기술되어 있다. 인격 고양을 위한 글로서 김윤경은 “文明과 幸福의 背馳를 論하여 人格革命을 主張함”을, 채필근은 “人格의 眞正한 價値”를 게재했다. 김윤경은 감리교 장로로서 조선어학회, 흥사단, 배화여학교, 연세대학교, 한양대학교에서의 사역을 통해 한글연구, 애국활동, 교육사업에 공헌했다.<sup>30)</sup> 채필근은 장로교 목사로 평양신학교, 숭실학교, 메이지학원(明治學院), 동경제국대학에서 수학했고 목회자와 교수직을 역임하면서 종교, 철학, 역사, 심리학 등 다방면에서 저서를 남겼다.<sup>31)</sup>

김윤경은 ‘제도’와 ‘인간’을 대비시켜 자신의 논증을 전개했다. 그는 인간의 행복을 증진시키기 위해 제도를 운영해나가는 실체는 인간이라고 했다. 그러나 아무리 뛰어난 제도라 할지라도 지도자가 바른 인격을 갖추지 못하면 원성이 빗발칠 것이고, 비록 좋지 못한 제도라 할지라도 지도자가 인격을 바르게 갖춘 사람이라면 도리어 칭송을 받는 결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했다.<sup>32)</sup> 그는 이 논리에 근거하여 기독교청년들이 추구해야 할 ‘인격혁명’과 ‘도덕혁명’이라는 모토를 부각시켰다. 그는 기독교청년들이 이 숭고한 내적 혁명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三大 發見’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자신’, ‘타인’, ‘진리’를 세 정점으로 삼아 3대 발견이라는 삼각 구도를 도출해내었다. 자신을 찾고, 남을 찾고, 진리를 찾는 것이다. 자신을 찾는 것은 자신이 완전한 인격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고, 남을 찾는 것은 이상적 사회를 조직할 과업을 추구하는 일이며, 진리를 찾는

30) 기독교대백과사전편찬위원회 편, 『기독교대백과사전(제3권)』(서울: 기독교문사, 1994), 263-264. ‘김윤경’ 항목.

31) 기독교대백과사전편찬위원회 편, 『기독교대백과사전(제14권)』(서울: 기독교문사, 1994), 590-591. ‘채필근’ 항목.

32) 김윤경, “文明과 幸福의 背馳를 論하여 人格革命을 主張함,” 17.

것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독실한 신앙심을 가리킨다. 그는 이 세 정점이 장차 한국교회의 새로운 시대를 짊어져야 할 기독교청년들이 갖추어야 할 필수불가결한 삼대 요체(要諦)라고 천명했다. 이 주장들을 종합하면 김윤경이 이 글에서 제시한 논점은 ‘3대 발견 선행→인격혁명과 도덕혁명의 실현→한국교회의 미래를 짊어짐’이라는 논리적 도식으로 나타난다. 아래 인용문 가운데 밑줄 처리된 인격혁명과 도덕혁명 두 용어는 원문에 모두 방점 처리되어 있다.

國的으로나 全 世界的으로나 時急히 하여야 할 것은 人格革命 卽 道德革命이라고 봅니다. 이것이 將來 歷史上 新 時期, 新紀元을 짓게 되어야 할 것이외다. 그리하여 歷史의 方面을 轉換하여야 할 것이외다. 그러한즉 時急히 三大發見을 합시다. 一, 나를 찾자- 完全한 人格者가 되자(마태 五章 四十八) 二, 남을 찾자- 理想的 社會를 組織하자(고린도前 十二장 四-三十一) 三, 眞理를 찾자- 하나님의 權威임을 알자(요한 十四장 六)<sup>33)</sup>

한편 채필근은 “人格의 眞正한 價値”에서 뱃길을 밝히는 등대와 광고관의 전등이 고유한 역할과 가치를 갖고 있다는 논리를 들어 기독교청년들이 감당해야 할 책임과 의무를 논증했다.<sup>34)</sup> 그는 인류역사는 고대로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항상 변화와 생성을 거듭해왔고 인간은 이에 보조를 맞추어 개혁을 이루어감으로써 인류문명이 꾸준히 진보하고 발전할 수 있었다고 했다.<sup>35)</sup> 그의 이러한 논리는 과거, 현재, 미래로 전개되는 직선사관에 입각해있지만 일면 헤겔의 역사관과도 맥락을 같이 할 정도로 깊은 철학적인 소신을 함축하고 있다. 왜냐하면 헤겔이 주장한 바 ‘발전으로서

33) 앞의 글.

34) 채필근, “人格의 眞正한 價値,” 『眞生』 창간호(1925), 1.

35) 앞의 글, 2.

의 회귀'를 논한 역사관은 순환(kreislauf)으로서의 미래를 향한 진취적이며 이상적인 발전을 지향하기 때문이다.<sup>36)</sup> 그는, 당시 1920년대는 변화무쌍한 시대이며 이러한 시대적 변화에 발맞추어 역사적 진전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그 주역으로서 기독교청년들이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또한 기독교청년들이 전면에 나서서 이러한 대과업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인격의 진정한 가치를 갖추는 일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바르게 갖추어진 인격을 가리켜 '참自我'라고 했고, 이는 고대 그리스 철학자 소크라테스(Socrates)가 말한 것처럼 자신을 바르게 아는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태복음 16장 26절에서 천하를 얻고도 생명을 잃으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고 말씀하신 바로 그 고귀한 '생명'과도 같다고 이해했다.

우리는 主觀 閣 參 自我를 차저야 客觀의 森羅萬象을 올케 解釋할 수가 있을 것이다. 이것이 소크라테스의 格言에 『너는 네 自身을 알아라 한 것이며』 敎主 예수의 말씀에 『사람이 만일 天下를 얻도고(얻고도-연구자 주) 그 生命을 일하면 무엇이 有益하리오, 사람이 무엇으로써 그 生命을 밋구겠느냐』 하신 것이로다. 人格의 眞正한 價値는 어데 잇나뇨. 時代와 環境을 卞라 잘 順應 適應하면서 自己의 固有한 能力을 發揮하여 最善의 目標에 到達하기까지 努力하는 데 잇는 것이로다.<sup>37)</sup>

본 절에서 소개한 김윤경의 “文明과 幸福의 背馳를 論하여 人格革命을 主張함”과 채필근의 “人格의 眞正한 價値”, 두 글에서는 기독교청년들의 면려 실천활동과 인격을 한 지평에서 통일성 있게 조명함으로써 이들에게 공동된 교훈의 메시지를 전했다. 한국교회를 바르게 개척하는 일꾼들이

36) 김균진, 『해결哲學과 現代神學』(서울: 대한기독교출판사, 1991), 57.

37) 채필근, “人格의 眞正한 價値,” 6.

되기 위해서는 모름지기 무엇보다도 바른 인격을 갖춘 청년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인격을 갖추어야 주어진 사명에 투철할 수 있고, 유익한 결실을 산출할 수 있으며, 그래야만 한국기독교의 미래를 보장할 수 있다는 것이다.

### 3. 안대선의 “訓練된 일군” 분석

안대선은 본 논문 제1장에서 간략하게 소개했듯이 1921년 2월 5일 안동읍교회에 기독교면려회를 조직했던 미국북장로교 파송 선교사이다. 1917년에 내한하여 안동선교부 소속 선교사로 사역했으며 영주, 의성, 예천, 청송 등지에서 복음을 전했다. 1924년에는 기독교청년면려회 조선연합회 창립총회에서 초대 총무로 선출되어 면려운동에 헌신했다. 여자성서학원과 정신여학교에서 교수직에 봉직하여 가르쳤고, 1936년 독일 세계면려대회에 한국대표로 참석하는 등 교육사업, 계몽활동, 청년운동 분야에 매진했던 인물이다.<sup>38)</sup>

그는 “訓練된 일군”이라는 제하에 청년 재원을 발굴하여 훈련해야 한다는 취지로 이 글을 기고했다. 그는 이 글 서두에서 다양한 의미가 함축된 비유 하나를 들었다. 채석장에서 내다버린 대리석 덩어리가 나뭇굴고 있었는데 이 돌을 쳐다본 한 시인은 하나님의 얼굴이 그 안에 녹아있다고 시를 읊었고, 도덕학자는 조각상으로 다듬는다면 매우 가치 있는 작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아까워했다. 평소에는 팽개쳐진 모습 그 자체로 만족해하던 대리석이 도덕학자의 말에 큰 깨우침을 받아 다른 사람에게 행복을 주는 조각상으로 거듭나기를 소망했고, 드디어 한 장인의 손길에 의해 아름다운 조각상으로 거듭났다는 내용이다.<sup>39)</sup> 그는 이 비유를 통해

38) 기독교대백과사전편찬위원회 편, 『기독교대백과사전(제10권)』(서울: 기독교문사, 1994), 1428. ‘앤더슨10’ 항목.

기독교면려회가 한국 기독교청년들로 하여금 ‘미’(美), ‘힘’, ‘지식’을 발휘하여 공헌할 수 있도록 일꾼들을 발굴하고 훈련하는 과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는 기독교면려회가 추진해야 할 여러 가지 과업들 중에서도 가장 인프라에 해당되는 기초과업의 중요성을 상기시키고자 하려는 의도에서였다. 교육학자 가드너(Howard Gardner)가 밝혔듯이 일꾼은 고도의 훈련을 받음으로써 질적으로 훌륭한 결과를 산출해낼 수 있고, 책임감을 갖추며, 어려운 가운데서도 공동체에 봉사하고자 하는 열정을 품게 된다.<sup>40)</sup> 아무리 능력이 있고 일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갖춘 귀재라 할지라도 제 때에 훈련을 받지 않고 일꾼으로 등용되지 못한다면 결코 그 꿈과 재능을 펼쳐 보일 수가 없다. 안대선은 부지런히 청년 인재들을 발굴하여 이들에게 기회를 주어야 하고, 이들이 한국교회와 사회에 유익한 일꾼들로 성장하기를 소망했다. 그는 기독교면려회가 이 기초과업을 시급하게 추진해야 할 당위성을 다음과 같이 천명했다.

우리 크리스찬 青年의 貌樣 업는 外觀에 숨어잇는 바도 美와 力의 性格이 될 수 잇을 것이다. 能力이 潛伏하여 못처 잇기도(문혀 잇기도-연구자 주) 할 것이다. 그 能力을 解放하여 奉仕에 쓰면 여러 사람의 救濟와 教會나 一般社會의 利益이 될 것이다. 그 潛伏한 能力이 解放되면 果然 엇더할가. (중략) 個人이 內部에 美를 감초어두기만 하고 充分할가. 그 美를 發現할 機會를 주고 奉仕에 쓰여지도록 할 必要가 업슬가. 內부의 美는 그 周圍에 잇는 이에게 보일 길이 업스면 所用 업슬 것이다. 그 內부의 知識은 박그로 다른 이에게 흘너감이 업스면 別로 所用이 업슬 것이다.<sup>41)</sup>

안대선은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인재를 발굴하여 등용하는 적재

39) 안대선, “訓練된 일꾼,” 49-50.

40) Howard Gardner/김한영 역, 『미래마인드』(서울: 재인, 2008), 184.

41) 안대선, “訓練된 일꾼,” 50.

적소 원리와 임원선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기독교면려회 위원들을 훈련시켜 능력을 개발하고 이들에게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이는 기독교면려회를 창설해야 할 명분과 필연적 의의를 밝히는 대목이다.

이 勲勵會가 여러 委員으로 組織함은 各 會員에게 特定한 일을 맡기어서 一斑 經驗이 업는 이라도 奉仕의 機會가 업거나 놀지 안케 하기 爲함이다. 隔年하여 委員을 選舉함은 各 사람에게 機會를 주어 여러 가지 큰일을 엇테케 함을 배호게(배우게-연구자 주) 하며 나중에 圓滿한 그리스도의 일구니(일꾼 이-연구자 주) 되도록 함이다. 여러 사람이 이러케 機會를 타서 訓練을 하며 일직이 조흔 일에 相當하게 準備를 하여 機會가 오기만 하면 有效한 일꾼이 되도록 함은 實로 조흔 일이 될 것이다.<sup>42)</sup>

이처럼 안대선은 선교사 입장에서 한국 청년들을 바라보았다. 그는 이 청년들이 자신들이 서 있어야 할 자리를 찾지 못하고 배회하는 모습에 안쓰러운 심사를 토로했다. 그가 안동읍교회에서 스스로 기독교면려회를 조직하여 장로교 총회에서 각 지교회에 기독교면려회를 설치할 것을 결의할 수 있도록 큰 전환적 모티브를 마련했던 것도 그의 심중에 이러한 확신과 신념이 투철하게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이다.

#### 4. 장성식의 “基督青年과 奮鬪” 분석

장성식은 “基督青年과 奮鬪”을 통해 “專心專力하여 싸가 부서지도록 쫓까지 奮鬪”<sup>43)</sup>하는 청년상을 요구했다. 장성식은 이 글에서 장년은 현재를, 청년은 미래를 대표하는 사람들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글 서두에서부

42) 앞의 글.

43) 장성식, “基督青年과 奮鬪,” 『眞生』 창간호(1925), 48.

터 한국교회를 진단하기 위한 청진기를 꺼내들었다. 특별히 그는 한국교회의 장년 세대에 주목하여 이들의 모습이 너무나도 무기력하고 비참한 상황에 처해있으며 ‘無價値’하다고 표현해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로 실망스럽기 짝이 없다고 토설했다. 그는 사회의 원동력이 되어야 할 장년층이 이기주의, 허무, 맹랑함, 모리배(謀利輩), ‘일종목상’(一鍾木像), ‘일종소인’(一鍾塑人)의 볼품없는 세대로 치달았다고 탄식했다. 결국 그의 진단에 의하면 당대 한국기독교가 가치를 논할 수조차 없는 지경으로 전락했다는 의미가 된다.

青年은 眞趣의 象徴이다. 老年이 過去를 代表한다면 壯年은 現在를, 青年은 未來를 代表한다고 할 것이오 (중략) 우리들이 敬意를 表하고 期待를 가지는 現在의 主人公인 壯年들의 그 꼴은 어찌하냐? 社會的으로 宗教的으로 我利利慾에 始終하는 利己主義者가 아니면 虛無, 孟浪 (중략) 謀利賣節하는 人非人(사람과 사람 아닌 자를 아울러 이룸-연구자 주) 腫棄할 界城에서 徘徊치 안는 者가 머지나(몇이나-연구자 주) 됨을 아지 못한다. (중략) 壯年들이 그처럼 無價値한 一鍾木像에서 지내지 못하고, 社會的 物質的 活動의 素質을 가진 「진뜰맨」(gentle man-연구자 주)들이 쏘한 一鍾의 塑人(흙으로 빚은 사람-연구자 주)에서 지나지 못한다 하면, 그들노 새 代表되는 現在에 對하여, 엇지 (?)望할 餘地가 잇느냐?<sup>44)</sup>

장성식은 진일보 이러한 풍토가 전 한국 산하(山河)를 휩쓰는 위기상황이라고 진단했으며 ‘위기일발’, ‘몰락의 도정(途程)’, ‘최후의 전선(電線)’이라고까지 매섭게 필봉을 휘둘렀다.<sup>45)</sup> 그는 이 내용을 기술해가는 대목에서 붓에 힘을 주어 젊은 청년들을 소환했다. “青年 諸君아! 罪惡의 結晶이

44) 앞의 글, 47. 인용문 중 ‘(?)’는 판독이 불가능한 한자임.

45) 앞의 글, 48.

오, 不合理的 權化인 現在를 길도록 存續식혀야 可하겠는가?”<sup>46)</sup> 그는 이 단계에서 무기력한 사회를 개혁하고 타락상에서 해방시키기 위해 기독교 청년들에게 주어진 과제가 중대하다고 피력했다. 이는 그가 내린 최선의 처방전이다. 그는 청년들을 향해 온 마음을 다해 뼈가 부러질 정도로 분투하여 헌신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러한 難關에 處하야 青年된 우리들의 責任이 얼마나 重하랴. 압홀 내다보 니 滄海의 洶湧하는 波濤가 밀려 들어오고 뒤에는 깎기세운 絶壁인대 어대로 避할가? 아니다. 아니다. 專心專力하야 뼈가 부서지도록 瘃까지 奮鬪하지 안 으면 안 될 것이다. (중략) 自由와 權利가 업는 癖은 生活을 할지라도 「魂」까지 「匪」까지 癖어서는 안 된다. 더구나 이 社會가 우리 青年의 熱情은 足히 모든 癖쓸을(티끌을-연구자 주) 불살을 줄 밋고 있다.<sup>47)</sup>

1923년 YMCA 기관지 『青年』에는 이름을 밝히지 않은 한 기자(‘一記者’라고 표기됨)가 한국기독교인의 숫자가 30만 명에 이르지만 전혀 그 능력을 발휘하지 못해 사회가 기독교화 되지 못한 점을 비판했다.<sup>48)</sup> 최승만 역시 한국교회에 사랑도, 열정도, 순교의 정신도, 의로움도 없고 도리어 의식적, 미신적, 분립적, 이기적 단체로 경도되었다고 안타까운 심정을 밝혔다.<sup>49)</sup> 교회가 무력해질 때 청년은 교회 안에서조차 종교의 진정성이 소멸되는 아픔을 느끼며 결국 분노하고 방황하게 되는 고질적인 결과를 초래한다.<sup>50)</sup> 장성식은 이와 같은 시대적 정황을 타개하기 위한 일환으로

46) 앞의 글.

47) 앞의 글.

48) 一記者, “基督教과 半島教會의 責任,” 『青年』 3권 7호(1923년 7월8일), 38-43.

49) 최승만, “宗教와 生活,” 『青年』 11권 1호 (1931년 1월), 1.

50) 김은혜, “한국교회 청년문제를 통해 본 한국교회의 위기와 기독교윤리적 대안,” 『기독교사회윤리』 30(2014), 32.

기독면려회의 활동이 절실히 요청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결국 그의 핵심적인 논지는 반드시 기독면려회에서 청년 일꾼들을 양성해야 한다는 취지로 귀결된다. “여기에서 우리는 일군을 養成하여야 한다. 이것이 青年으로서 青年運動이다. 다시 말하면 青年階級の 團結을 固게 힘있게 매쳐야 (맺어야 연구자 주) 한다. 어찌 團結이 屢시 죽음에서 生을 求할 수 있스랴.”<sup>51)</sup> 이처럼 장성식은 한국사회에서 가장 힘을 발휘해야 할 장년층이 세 역할을 찾지 못한 채 점차 퇴보해가는 실상을 안타까워했다. 그나마 그는 한국기독교의 미래적 소망을 기독청년층에 두어 이들이 분투해줄 것을 호소했으며, 기성교회와 기독면려회를 향해 이들을 일꾼으로 양성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홍명선의 “朝鮮教會의 將來와 教會青年의 覺悟”에서 기독면려회의 창설의 의의를 논했고, 김윤경의 “文明과 幸福의 背馳를 論하여 人格革命을 主張함”과 채필근의 “人格의 眞正한 價値”에서 참 개혁자들이 되기 위해 인격을 갖출 것을 논했으며, 안대선의 “訓練된 일군”이 청년 재원을 발굴하여 훈련하는 차원을 강조했다면 장성식의 글 “基督青年과 奮鬪”에서는 삶의 현장에서 기독교 세계관을 펼치는 청년 전사(戰士)의 모습을 묘사했다. 따라서 이 다섯 편의 글들은 당시 한국의 상황을 진단하고 기독면려회의 진로 및 비전과 관련하여 핵심적인 내용들을 일목요연하게 통찰했다는 점에서 『眞生』 창간호의 발행취지를 매우 효율성 있게 보여 주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 IV. 나가는 말: 기독면려회의 기독교윤리적 함의

지금까지 1924년도에 창설된 한국 기독면려회의 기관지 『眞生』 창간호(1925. 9)를 중심으로 기독면려회의 창설 의의와 노선을 분석해보았다.

51) 장성식, “基督青年과 奮鬪,” 48.

창간호에 게재된 홍병선, 김윤경, 채필근, 안병선, 장성식 등의 글은 기독교면려회 창설과 관련하여 그 취지와 노선을 가장 잘 보여주었고, 이를 통해 기독교윤리관을 밀도 있게 제시했다는 점에서 큰 가치가 있는 문헌들이다. 이 글들이 갖는 기독교윤리적 함의는 다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기독교세계관의 부패를 초래하는 ‘맘몬이즘’을 경계해야 하며 ‘소명의식’을 확립해야 한다는 점이다. 홍병선은 “朝鮮教會의 將來와 教會青年의 覺悟”에서 한국기독교 역사의 과거, 현재, 미래의 시대적 흐름을 역사적 해석 관점에서 파악했다. 그는 유물주의와 맘몬이즘에 치우친 당대의 병폐를 진단함으로써 이를 척결해야 한다는 과제를 제시했고 그 대안으로서 기독교면려회를 통한 기독교청년 양성을 주장했다. 그는 유물주의를 타파할 것, 협동심을 진작시킬 것, 인권 동등을 실현할 것, 형식과 규칙을 타파하여 활기찬 생활을 고양할 것, 교회 내의 불합리한 현상들을 기독교정신에 입각하여 개혁할 것 등 다섯 가지 개혁안을 제시하면서 기독교청년들이 그 주역이 되기 위해서는 사치, 교만, 타인 존중심, 정직, 수단, 분열행위, 근면성, 비판 등과 관련하여 바른 윤리관을 정립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 점과 아울러 깊이 고려해야 할 사안이 있다. 윤리에서 직업과 관련하여 논의되는 전통적 주제로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소명의식이다. 지금은 너무나 당연한 개념으로 수용하고 있지만 과거에는 일 자체가 경시받았다는 점을 성찰해야 한다. 일은 인간의 행복을 위한 중요한 요소인 동시에 사회를 지탱하게 해주는 중요한 인프라가 된다. 개신교에서는 일과 직업에 대한 신학적인 의미를 새롭게 적용하여 종교의 확산 및 질적 변화에 기여하였으며, 직업소명론에서 볼 수 있듯이 직업윤리관을 형성하는 데 기여했다.

둘째, 도덕적 주체자로서의 각 개인의 ‘인격’을 기독교세계관에 입각하

여 정립해야 한다. 김윤경은 “文明과 幸福의 背馳를 論하여 人格革命을 主張함”을 통해, 채필근은 “人格의 眞正한 價値”를 통해 기독교청년들이 참 인격을 갖출 것을 역설했다. 김윤경은 기독교청년들이 추구해야 할 ‘인격혁명’과 ‘도덕혁명’을 부각시켰으며 이 혁명을 구현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3대 발견을 제시했다. 이 3대 발견은 청년들이 완전한 인격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 이상적 사회를 조직하는 일, 진리를 추구하는 열정에 직결된다. 채필근은 시대적 변화에 발맞추어 역사적 진전을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기독교청년들이 그 주역이 되어야 하고 이들이 선봉에서 서서 대과업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인격의 진정한 가치를 갖추는 일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했다. 그는 바르게 갖추어진 인격을 가리켜 ‘참 自我’이자 ‘생명’이라고 했다. 기독교 공동체의 사회적 기여는 조직과 사회운동에서가 아니라 일차적으로 각 개인의 인격적 자기발견과 도덕적 훈련이라는 개인윤리적 차원이 바탕이 되어 있다. 기독교면려회의 윤리적 노선은 먼저 개인윤리를 확립함으로써 개인 인격의 변화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 사회의 변화를 지향한다는 점에서 고도의 가치관을 담고 있다.

셋째, 기독교공동체에서 성실하게 ‘윤리적 책무’를 감당하고 꾸준히 청년들을 ‘발탁’하여 ‘훈련’시킴으로써 사회변화를 추구해야 한다는 교훈을 준다. 교육은 개인을 변화시키며 나아가 사회를 변화시키는 초석이 된다. 안대선은 “訓練된 一軍”에서 기독교면려회가 기독교청년들로 하여금 미(美), 힘, 지식을 발휘하여 공헌할 수 있도록 일군들을 발굴하고 훈련하는 과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기독교청년들이 발탁되어 성실하게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고 교회와 사회에 유익을 주는 일꾼들로 성장할 수 있기를 기원했다. 또한 인재들을 발굴하여 이들을 등용하고 적재적소의 원리에 따라 사명을 부여하는 과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기독교면려회가 존립해야 할 명분과 필연적 의의가 바로 이 과업에 있다고

보았다. 장성식은 “基督青年과奮鬪” 분석에서 “專心專力하여 뼈가 부서지도록 쫓까지奮鬪”하는 전투적 청년상을 일깨웠다. 그는 한국교회의 장년 세대가 너무나 무기력하고 비참한 상황에 처해있으며 이기주의, 허무, 맹랑함, 모리배, ‘일종목상’, ‘일종소인’의 세대가 되었다고 탄식했다. 그는 이러한 세속화된 사회를 개혁하기 위해서는 기독교청년들이 전심으로 분투하여 헌신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비록 장년층이 제 역할을 담당하지 못해 사회가 심각하게 병들었지만 한국기독교의 미래적 소망을 기독교청년층에서 발견했고 기성교회와 기독교면려회를 향해 이들을 일꾼으로 양성해줄 것을 독려했다.

우리는 도덕과 관련된 이론 자체를 분석 평가하는 이론윤리와 그 적용을 모색하는 실천윤리로 구분해 볼 수도 있는데, 기독교면려회 운동과 『眞生』 발행을 통한 계몽활동은 실천윤리적으로 큰 의미를 가지며, 현실 사회에서도 적용할 여지가 있다. 일제강점기 기독교면려회는 대외적 활동으로서 금주금연운동, 문맹퇴치운동, 농촌사업, 사회 계몽운동, 교육활동, 여성운동, 절제운동 등을 선도했었다. 현 시대에는 시대가 변했다는 점을 고려하여 청년 단기선교, 빈곤국가 방문봉사, 농어촌 일손 돕기, 장애인과 독거노인 돌봄, 결손가정 아동 보살핌, 새터민(탈북민)과 난민을 위한 사업 등을 NGO활동과 연계하여 전개할 수 있을 것이다. 1980년대만 해도 교단별 총회 혹은 노회 차원에서 면려회를 조직하여 교회 내부가 아닌 사회봉사를 추진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현재 교단 혹은 교파를 초월하여 기독교면려회를 비롯한 청년 조직은 매우 침체되어 존재의 기로에 서 있다. 명목상 유지되고 있을 뿐 교회 내의 청년층 감소와 함께 그 설립 취지를 상실한 경우가 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면려회를 재구조화하여 활성화하는 방안을 모색해보아야 한다. 비조직화 된 개별 활동이나 사업으로 진행하는 것보다는 역사를 갖고 있는 기독교면려회 활동

으로 재 조직화할 경우 기독교계뿐만 아니라 외적으로도 긍정적인 반응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이 논문은 『眞生』이라는 기독교면려회의 기관지를 분석함으로써 일제강점기 기독교운동의 구체적인 일면과 윤리체계를 고찰하고자 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사학자 호리고메 요조(堀米庸三)가 설파했듯이 과거역사가 갖는 객관적 사실들은 '지금 그리고 여기에서'라는 실존적 의미를 지향하는 계시히테로서의 주관성을 갖출 때에 미래지향적 가치와 생명력이 발휘될 수 있다.<sup>52)</sup> 이런 점에서 본 논문은 윤리분석이 단지 이론으로 종결되고 역사분석이 역사적 사실을 기술하는 정도로 마무리되는 한계를 넘어서기 위한 작은 시도라고 할 수 있다. 과거의 역사적 사실들에 대해서는 객관적 역사만을 서술하는 히스토리에(Historie) 차원을 넘어서서 계시히테 차원에서 시의성 있는 의미를 재확인할 수 있도록 현 시대에 주는 교훈점이 무엇인지 탐색해보아야 한다. 기독교면려회 창설노선이 보여주는 직업, 일, 직업, 근면성, 소명, 이타심, 봉사과 헌신 등의 가치관은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 삶의 질을 고양해갈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윤리적 덕목들이다.

52) 堀米庸三/박시중 역, 『역사를 보는 눈』(서울: 개마고원, 2008), 87-95.

## 참고문헌

- 기독교대백과사전편찬위원회 편. 『기독교대백과사전(제3권)』. 서울: 기독교문사, 1994.
- \_\_\_\_\_. 『기독교대백과사전(제10권)』. 서울: 기독교문사, 1994.
- \_\_\_\_\_. 『기독교대백과사전(제14권)』. 서울: 기독교문사, 1994.
- \_\_\_\_\_. 『기독교대백과사전(제16권)』. 서울: 기독교문사, 1993.
- 김균진. 『헤겔哲學과 現代神學』. 서울: 대한기독교출판사, 1991.
- 김난도 외. 『트렌드 코리아 2018』. 서울: 미래의 창, 2017.
- 김덕. “1920~30년대 기독교청년면려회 연구.” 『한국기독교와 역사』 제18집 (2003), 203-240.
- 김봉희. 『한국 기독교문서 간행사 연구(1882-1945)』. 서울: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1987.
- 김양신. “한국교회사, 제2개신교사.” 고려대학교민족문화연구소. 『韓國文化史大系(4)』. 서울: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1978.
- \_\_\_\_\_. 『한국기독교회사 연구』. 서울: 기독교문사, 1971.
- 김윤경. “文明과 幸福의 背馳를 論하여 人格革命을 主張함.” 『眞生』 창간호 (1925), 7-17.
- 김은혜. “한국교회 청년문제를 통해 본 한국교회의 위기와 기독교윤리적 대안.” 『기독교사회윤리』 제30집 (2014), 7-36.
- 김인수. “초기 한국교회사에 나타난 절제운동에 대한 고찰.” 『教會와 神學』 33(1998), 35-44.
- \_\_\_\_\_. 『한국기독교회의의 역사』. 서울: 장로회신학대학교출판부, 1998.
- 민경배. 『한국기독교회사』. 서울: 연세대학교출판부, 2000.
- 박명우. 『어떻게 일할 것인가?』. 서울: 이엘북스, 2017.
- 서신혜. “기독교 전래에 따른 일제 강점기 경제 인식의 특징과 나눔 인식.” 『기독교 사회윤리』 제26집 (2013), 149-177.
- 안수강. “해방 이전과 현 YMCA의 기독교 활동 비교.” 『역사신학논총』 제30집 (2017), 144-180.

- 오기형. “기독교 면려회란 무엇인가?” 『신학논단』 제2집 (1954), 91-95.
- 이광수. “耶蘇敎의 朝鮮에 준 恩惠.” 『青春』 제9호 (1917), 13-18.
- 이만열. 『한국기독교문화운동사』. 서울: 대한기독교출판사, 1992.
- 一記者. “基督教과 半島敎會의 責任.” 『青年』 3권 7호(1923년 7월·8월), 38-43.
- 장성식. “基督青年과 奮闘.” 『眞生』 창간호(1925), 47-49.
- 채필근. “人格의 眞正한 價値.” 『眞生』 창간호(1925), 1-6.
- 최승만. “宗教와 生活.” 『青年』 11권 1호 (1931년 1월), 1.
- 홍병선. “朝鮮敎會의 將來와 敎會青年의 覺悟.” 『眞生』 창간호(1925), 31-37.
- 홍순원. “인격과 사회구조에 나타나는 악의 연대성.” 『기독교사회윤리』 33(2015), 379-405.
- 堀米庸三/박시중 역. 『역사를 보는 눈』. 서울: 개마고원, 2008.
- Gardner, Howard/김한영 역. 『미래마인드』. 서울: 재인, 2008.

논문투고일: 2019년 6월 27일

심사개시일: 2019년 7월 16일

게재확정일: 2019년 8월 12일

---

• 국 문 초 록 •

---

이 연구는 『眞生』 창간호(1925년 9월)를 분석하여 기독교면려회의 창설 이념과 노선을 고찰하고 오늘날 기독교청년들에게 기독교 윤리적 함의를 제시하려는 데 목적을 둔다. 제2장에서는 기관지 『眞生』에 대한 서지정보를 다루었으며 기독교면려회와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의미 있는 글들을 선별하여 소개함으로써 후속연구가 용이하도록 했다. 제3장에서는 홍병선, 김윤경, 채필근, 안대선, 장성식 등의 글을 선정하여 기독교면려회에 관한 개요를 살펴보았다. 이 글들은 각기 특색이 있지만 공통적인 논점은 첫째, 급변하는 시대이자 사회가 부패했다는 점 둘째, 이러한 시대를 선도함으로써 기독교정신을 구현해야 한다는 점 셋째, 그 중추적인 책임과 의무가 기독교청년들에게 주어져 있다는 점 넷째, 이러한 기독교청년 일군들을 양성하기 위해 기독교면려회가 적극 숭선해야 한다는 점 등이다. 제4장에서는 3장에서 다룬 내용을 중심으로 오늘날 기독교인들에게 주는 윤리적 함의를 제시했다. 첫째, 부패를 초래하는 맘몬이즘을 경계해야 하며 소명의식을 확립해야 한다. 둘째, 도덕적 주체자로서의 각 개인의 인격을 기독교세계관에 입각하여 정립해야 한다. 셋째, 기독교공동체에서 성실하게 윤리적 책무를 감당하고 꾸준히 청년들을 발탁하여 훈련시킴으로써 사회변화를 추구해나가야 한다.

**주제어:** 기독교면려회, 『眞生』, 앤더슨, 기독교윤리, 청년운동, 홍병선, 김윤경, 채필근, 장성식

---